

목포, 현대적 시설 갖춘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박차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남진 야시장이 지난 17일 재개장했다. 남진 야시장은 자유시장 내에 마련되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개장 첫날에는 우리 지역 출신 가수인 윤선영의 축하 공연과 함께 농수로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대에는 나지호롱, 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소품, 방향제, 잡화 등의 프리마켓 21

개 매대가 판매를 준비 중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남진씨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은 지난 2015년 말 첫 개장했다. 목포역에서 멀지 않고 대표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인근에 위치해 여행객과 시민들 모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목포시는 지역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청호시장 모바일 디지털시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2월말까지 250여건의 인터넷 주문이 이뤄지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년 이상 오랜 역사로 목포의 전통시장 1번지라 불리는 중앙시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해 쾌적한 시설로 거듭난다. 동부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전문 인력인 시장매니저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영암군, 나무심기 행사 추진

영암군은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신북면 용산리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과 군청 임직원들은 약 3시간에 걸쳐 산불에 강한 동백나무 2천본을 5ha의 면적에 식재하고 물을 주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군은 참가자들에게 왕대추나무, 자두, 체리나무 등 유실수 1천500본을 나누어주며 집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토록 권유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조림사업은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동백, 가시 등 20ha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단풍, 산벚나무 등 7ha ▲목재생산림 조성을 위한 편백 등 41ha ▲돈이 되는 특용수 조성을 위한 황칠, 엄나무 등 4ha 등 4개 사업을 추진, 총 72ha를 식재할 계획으로, 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2023 섬 수선화 축제 30일 개막 노란 봄의 향연, 수선화 향기 따라 힐링여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선화의 섬으로 유명한 지도읍 선도에서 “우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2023년 섬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7km에 이르는 수선화 재배단지 관람로를 따라 13ha의 면적에 178만구 수선화가 식재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람로 이외에도 수선화 정원과 잔디광장을 새로 조성하고 곳곳에 포토존과 쉼터를 설치해 선도를 찾는 상춘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선화 향기 따라 떠나는 힐링 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자전거로 선도 일주, 1년 뒤 받아보는 느낌보 우체통, 세상에 하나뿐인 꽃팔찌 만들기, 꽃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과 수선화꽃 회화전, 선도 사진전이 쉼터와

전시 부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선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선화를 모티브로한 다양한 굿즈 상품과 화분도 판매할 계획이다.

선도로 가는 길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며, 압해읍 가룡선착장에서 차도선으로 50여분이 소요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중 차량 없는 축제로 선도 수선화 꽃길 걷기에 관광객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축제기간 선박증편과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답게 핀 수선화 꽃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에 위안을 얻고 노란 봄의 전령사 수선화 꽃내음을 맡으며 가족, 연인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근 기자

강진군민장학재단 1차 정기이사회 개최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최근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결산(안) ▲2023년 상반기 강진군민장재단 장학생 선발(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 앞서, 강진상가변영회 회장 임영관, 사무국장 김원형과 전남푸드트럭 협동조합 이은수, 황숙

경씨가 각각 100만 원의 기탁금을 쾌척했다.

강진상가변영회는 2022년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강진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전남푸드트럭 협동조합은 이번 청자축제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흔쾌히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았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최종 98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성적 우수 분야가 40명, 복지 분야 9명, 다자녀 분야 24명, 다문화 가정 분야 5명, 한부모·가정 위탁 분야 1명, 특기자 분야 4명, 귀농인 자녀 분야 2명, 장한학생 6명, 마지막으로 명문대 분야 7명 등으로, 전체 지원금액은 1억 1천 130만 원에 이른다. /박종욱 기자

무안군 운남면 지사협 밀반찬 지원사업 추진

무안군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진오, 김나연)는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매월 1회 손수 만든 밀반찬을 중장년 홀몸 어르신 15명에게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함께 살피는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이다.

이날 봉사자들은 직접 엄선한 재료로 미역국, 고등어조림, 나물, 김치, 장조림, 떡 등 총 6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밀반찬과 간식을 준비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밀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에도 독거노인 목욕 봉사, 위문품 전달, 난방유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민재 기자

함평,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함평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10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요건을 없애고 만 60세 이상 함평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단,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또한, 기존 수술 전 신청 절차를 없애고, 수술 후에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월야보건지소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진료

비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무릎인공관절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씩 최대 240만원, 배내장·늑내장과 같은 안질환 수술은 한쪽 안(眼)당 30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